

# 프로야구 FA 시장 일주일째 잠잠...장기전 불가피

현장 반응 '냉랭'...빅4는 물론 포수 자원도 신중론 이어져

"여론 무시 못해"...구단들, 고참급 계약 긍정적 대거 잔류 예상

프로야구 FA 시장이 문을 연 지 일주일만 지나지만 조용하기만 하다. 현장에서는 "대어가 없다"며 잔뜩 움츠리고 있고 선수들은 기다리고만 있다. 당분간은 탐색색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2020년 FA 시장에서 대상자 19명 중 1호 계약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도 11월28일야야 모창민(NC)이 1호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 혹은 더 늦은 시기에 1호 계약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차갑고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일단 전체적으로 "대어가 없다"는 평가 속에 분위기를 관망하는 자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내부 FA, 외부 FA 모두 마찬가지다. 한 구단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대형 FA가 없다. 큰돈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들 내부단속만 철저히 하자는 분위기인데 이

마저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현재 흐름을 설명했다.

일명 FA 빅4로 평가되는 안치홍-김선빈(이상 KIA), 전준우(롯데), 오지환(LG)에 대해서도 시장반응은 신중하다. 우선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은 소속팀 잔류가능성이 높고 전준우에 대해서는 고평가와 저평가가 양립중이다. 관계자들은 "전준우가 대이라고 하면 대이지만...FA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평가한다. 수비에서의 약점, 적지 않은 나이, 특별한 강점 부재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주가가 상승한 김태군(NC), 이지영(키움)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양의지(NC)만큼 선수단 자체를 바꿔 줄만한 파괴력이 없기에 투자대비 효율성 및 장래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포수가 약점인 몇몇 구단들마저 냉정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장기전

을 예고하고 있다. 그나마 수요는 여전히 편이기에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알토란, 준적급의 표현조차 애매한 고참급 선수들이 주를 이룬다. 아직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기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다수 구단들이 선수육성을 모토로 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2차 드래프트도 변수다. 구단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FA영입보다는 영가에 진흥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어 오히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가성비 차원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출자 면밀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구단들이 FA 계약에 조급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유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 구단이 소위 고참급 선수들과 계약에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몇



2020년 FA 자격 선수 중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전준우,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

년간 리빙팅 분위기 강화로 일부 구단들이 고참선수들과 계약에 미온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과 성적하락시 부담감이 크게 작

용하며 "작은 액수라도 팀에 헌신한 고참들 자존심은 세워주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이번 FA 선수들은 많은 비율이 잔류를 택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고 전망했다. 프리미어12가 열리는 것과는 별개로 FA 시장은 12월 이후로 이어지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 류현진, MLB.com FA 가상드래프트 평가 전체 5위...투수 중 3위

"부상 위험 크지만 내년까지는 좋은 성적 예상"



류현진(32·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FA선수들로서만 구성된 가상 드래프트에서 전체 5번째, 투수 중 3번째로 평가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지난 10일(한국시간) 두 명의 메이저리그 전문가(월

라이치, 마이크 피트리엘로)를 대상으로 FA자격 선수들의 모의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번 FA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도였다.

전체 1순위는 피트리엘로의 선택으로 일찌감치 최대어로 꼽힌 투수 게릿 콜(휴스턴)이 꼽혔다. 그는 콜에 대해 "2019년 최고의 투수였고, 2020년에도 최고의 투수가 될 전망"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라이치가 전체 2순위이자 타자 중 최고순위로 앤서니 렌던(워싱턴)을 택했다. 3순위 역시 라이치의 선택으로 시즌 후 유프아

웃을 선언한 월드시리즈 MVP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가 차지했다. 4순위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1년 옵션을 거절하고 시장에 나온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이다.

그리고 5순위로 류현진이 선택됐다. 라이치는 "류현진은 분명 큰 부상위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활약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선 부정적인 요소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어 "이 드래프트는 오직 1년이 기준"이라며 "그(류현진)는 아마도 내년 시즌 다시 한번 평균자책점 2.50 아래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부상위험이 큰 류현진의 장기적인 활약은 예단할 수 없으나 당장 2020년까지는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류현진의 과거 부상이력과 올해 호성적을 전부 염두에 둔 평가다.

지난 2013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류현진은 어깨 등 잦은 부상 및 수술로 지난 몇 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서히 기량을 끌어올리더니 올 시즌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시즌 후 FA자격을 얻었고 다저스 잔류, 타 팀 이적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1

##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우승

한국, 월드컵 금 4개로 마감...황대현, 금 2 은 1 수확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추가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 4개로 월드컵 2차대회를 마무리했다.

황대현(한국체대), 이준서(한국체대), 김동욱(스포츠포토), 박인욱(스포츠포토)으로 구성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9-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대회 남자 5000m 계주 파이널A에서 6분55초968 기록하며 헝가리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열린 개인전에서는 금메달

이 나오지 않았다. 황대현은 남자 5000m에서 41초108을 기록, 헝가리의 산드르 류 샤오인(40초995)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현은 전날 1000m 1차 레이스 금메달 포함,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박인욱은 남자 1000m 2차 레이스 파이널A에서 1분29초361로 은메달을 따냈다. 박지원(성남시청)이 1분29초417로 동메달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날 남자 1500m 박지원, 여자 1500m 김지유(성남시청)의 금메달 포함, 이번 대회를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마쳤다.

**명품하는 행복하운**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